

하수는 최신 사례에 연연해. 어느 아이템이 뜰다 싶으면 그 흥내를 내려 들어. 하지만 고수는 역사의 흐름에서 지혜를 얻는 단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광장 한가운데 유리로 만든 피라미드가 있지? 천재 건축가 아이엠 페이I.M. Pei가 무슨 뜻으로 고색창연한 왕궁 안뜰에 어울리지도 않는 현대식 건축물을 지었을까?

박물관에 가면 수백 년 된 유물들을 보면서 대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단편을 상상해보고 말잖아. 거기에 그치지 말고, 아이엠 페이 자신이 인류의 수천 년 된 문화유산을 현대의 모습으로 재해석했듯이 박물관에 온 관람객들도 인류의 발자취를 보며 현재 삶을 반추해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의도 아니었을까?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 인류가 이루어낸 걸 보면 기적과 같지. 하지만 ‘인간’은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것 같아. 그러기에 기원전에 살았던 공자나 소크라테스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것 아닐까. 2,000여 년 전에 쓰인 불경이나 성경의 한 자 한 자가 지금 읽어도 버릴 게 없다니까.

마찬가지로 역사의 흐름에 개개 인간이 대처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 인간을 잘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인문학이나 심리학을 꿰고 있어야 해. 내가 만나본 장수 CEO들은 하나같이 나름의 철학적 깊이가 대단한 분들이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을 유심히 들어보렴.

It is in Apple's DNA that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it's technology married with liberal arts, married with the humanities, that yields us the results that make our heart sing.

기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애플의 DNA에 들어 있습니다. 인문 및 인본주의적 사고와 결합한 기술이어야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결과를 창출합니다.

마케팅 전략은 쉬워 보이지. 누구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다니까. 어떤 브랜드가 뜨네 마네 하면, 누구나 한마디씩 분석